

축산농가 방역관리 지침

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

① 외국인근로자 채용 전 신분확인 등을 철저히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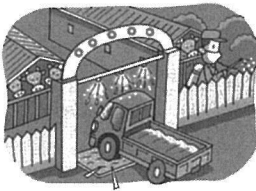
- ▶ 첫째 : 신분확인 철저
성명, 여권번호, 가족사항, 출신 국가에서의 직업 등 확인
- ▶ 둘째 : 국내 타 농장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확인하여 채용시 방역상 위해가 없는지 확인

②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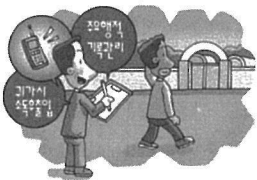
- ▶ 첫째 : 마을회관 등 가족이 없는 곳에서 채용철차를 밟을 것
- ▶ 둘째 : 국내 타 농장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확인하여 채용시 방역상 위해가 없는지 확인
 - 휴대품을 확인하여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·폐기
 - 의복·신발·가방 등 개인용구에 대하여 세척·소독 등 조치
- ▶ 셋째 : 최초 채용 및 자국 방문 후 입국 시 5일간 축사(농장)출입금지
- ▶ 넷째 : 시장, 군수에 외국인근로자 채용사실 신고
 -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③ 농장근무시에는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합니다.



- ▶ 첫째 : 농장 내·외부 청소 및 소독, 질병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준수사항 교육
- ▶ 둘째 : 농장 출입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의복과 신발 착용
- ▶ 셋째 : 농장주변 정리 등 업무수행 후에는 소독 후 축사 출입

④ 외국인근로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.



- ▶ 첫째 : 타 농장 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농장 방문 금지
 - 가급적 전화를 사용토록 권고
- ▶ 둘째 : 휴일 등 외출시에는 귀가 후 주요행적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농장 밖에서 소독 후 출입 허용
- ▶ 셋째 : 외국인근로자의 가족·친지 등은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조치

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지침

외국인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

① 출국 및 입국 시 준수사항



- 자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는다.
-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계란, 오리알, 햄, 소시지, 육포, 치즈 등
-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고 소독, 검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받는다.
- 해외여행 중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고 샤워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며 귀국 후 5일간 농장(축사) 출입을 금지한다.

② 농장 근무시 준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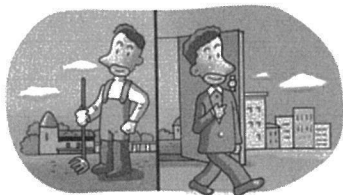


- 농장입구에서 차량 및 사람 소독을 철저히 한다.
- 축사 출입전에 반드시 작업복과 장화를 갈아 신고 들어간다.
- 축사입구에서 손과 신발을 소독하고, 축사 밖의 장비를 가지고 들어갈 경우 함께 소독한다.

- 축사에서 나올 때 입구에서 손과 신발, 사용 장비를 소독한다.
- 축사입구 소독조는 2일에 한번씩 갈아준다.
- 농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작업복은 2~3일에 한번 이상 세탁하여 착용한다.
- 사료를 적게 먹거나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는 신속하게 농장주에게 알린다.
- 소독약제 사용은 약품의 희석비율대로 사용토록 한다.



③ 출국 및 입국 시 준수사항



- 타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급한 용무는 가급적 전화를 한다.
- 가족·친구 등을 만날 때에는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한다.
- 외출할 때는 외출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고 외출한다.
- 귀가 즉시 속과 신발을 소독하고 깨끗이 목욕한다.

자료 :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